

“전남광주특별시, 공공데이터 통합전략 서둘러 짜야”

광주연구원, ‘광주정책포커스’ 발간...법적 공백·민원 마비 우려 하이브리드 거버넌스·디지털 트윈·데이터 혁신구역 등 과제 제시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27개 기초단체의 공공데이터 통합이 행정 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선결조건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데이터 통합 없이는 출범과 동시에 법적 승계 공백과 민원 마비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광주연구원은 1일 광주정책포커스 제 27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공공데이터 통합 전략’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도시·AI·교통 중심의 광주와 농업·

에너지·해양 중심의 전남 간 데이터 구조적 비대칭을 짚으며, 행정 통합 일정 안에서 실행 가능한 3대 핵심 과제와 6대 추진 원칙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광주와 전남의 데이터 통합이 세 가지 구조적 장벽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표준화 문제다. 양 시·도 간 항목명과 코드 체계가 서로 달라 데이터 자동 연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어 데이터 해상도 불일치 문제도 지적됐다. 도심

의 고밀도 데이터와 농촌의 광역 단위 데이터 간 공간 해상도가 맞지 않아 상호 연계가 쉽지 않다. 여기에 거버넌스와 보안 문제까지 더해진다. 서로 다른 클라우드 아키텍처와 망 분리 규정으로 물리적 통합과 논리적 공유 간 괴리가 발생하는 등 복합적 제약이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2010년 창원시 통합 사례를 교훈으로 제시했다. 창원시는 전남·광주보다 인구와 면적이 각각 3분의 1, 17분의

1 수준이었음에도 사전 표준화 미비로 행정 시스템 혼란을 겪었고, 출범 2년 만에 재구축에 나섰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인 만큼 준비 없는 출범은 더 큰 행정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광주연구원 우영주 연구원은 통합특별시 공공데이터 통합을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투 트랙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구축이다. 주민등록·지방세·지적·인허가 등 4대 공부 데이터는 물리적으로 통합하고, 지역 특화 데이터는 API 방식으로 연계하는 이원화 전략을 통해 시스템 충돌을 최소화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자는 구상이다.

또한 초광역 다중 해상도 디지털 트윈 구축이다. 드론과 센서 기반 데이터 증강 기술을 활용해 도농 간 정보 밀도 격차를 해소하고, 공급망 최적화와 정밀 재난 대응이 가능한 초광역 시뮬레이션 환경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초광역 데이터 혁신 구역 조성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통합특별법의 AI 실증지구 특례와 개인정보보호법 혁신존, 데이터기반행정법 등 법적 근거를 활용해 다중 특구를 지정하고, 320만 통합특별시민에게 ‘초광역 디지털 시민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통합 전 표준화, 통합 시 연계, 통합 후 일원화’를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행정 시스템 무결성 확보, 데이터 품질 유지, 단계적 접근, 시민 체감 중심 설계, 미래 확장성(AI 학습 자원화), 안전한 데이터 개방 등 6대 추진 원칙을 함께 제시했다.

우영주 연구원은 “데이터 통합이 지연될 경우 법적 승계 공백과 이중 시스템 운영에 따른 예산·인력 낭비, 민원 서비스 혼란, AI 투자 기회 상실이 불가피하다”며 “320만 데이터 기반의 초거대 AI 학습시장을 선점하고 통합 ID를 통한 공공서비스 원스톱 이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택시운전사×앞새주’ 한정판 출시...“광주의 봄 기억”

보해양조 캠페인 3년...광주권 유통 200ml 소용량 제품 사전예약 판매도

보해양조는 1일 5·18 소재 영화를 모티브로 한 ‘택시운전사×앞새주’ 2026년 한정판을 출시하며 광주의 봄을 기리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모티브를 얻어 첫선을 보인 이 시리즈는 매년 5월 앞새주 라벨에 특별한 메시지를 담아 선보이는 지역 밀착형 캠페인이다.

보해양조는 첫 해부터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용기를 기억하겠습니다’라

택시운전사 X 앞새주



는 슬로건 아래 1980년 5월 광주를 지켜낸 이들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는 진심을 담아, 해마다 새로운 디자인의 라벨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광주·전남 전역에 공급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 배경인 광주지역에 집중해 지역민과의 정서적 유대를 높인다는 전

략이다.

보해양조는 희소성을 높인 소용량 제품도 별도로 선보인다.

면의점 GS25의 전용 앱을 통해 택시운전사×앞새주 200ml 한정판을 사전 예약 판매한다.

알콜 도수는 기존 앞새주와 동일한 16도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올해는 광주권 한정 유통과 소용량 예약 판매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한정판의 의미를 더 하겠다”며 “지역사회와 깊이 공감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임곡농협은 최근 농협 자재창고에서 농가주부모임 회원 15명과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을 실시했다.

임곡농협,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

수거 보상금, 지역사회 공헌기금으로 활용

임곡농협은 최근 농협 자재창고에서 농가주부모임 회원 15명과 함께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영농폐기물 수거 캠페인 ‘영농후(후) 환경애(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추수 이후 관내에 방치된 농약병, 페비닐, 비료포대 등 각종 영농폐기물을 수거·분리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는 별도로 선별해 한국환경공단 광주본부로 이송하는 등 체계적인 처리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농촌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을 확대하는 데 의미

를 더했다.

특히 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제도를 통해 발생한 보상금은 연발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쌀·김치 나눔 행사 등 지역사회 공헌기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재만 임곡농협 조합장은 “영농철을 앞두고 바쁜 시기에 더욱 참여해준 농가주부모임 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영농폐기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지난달 31일 전주세관과 익산지원센터를 방문해 수출입통관 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인 DH오토리드를 찾아 생산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태일 광주세관장, DH오토리드 방문

자동차 스티어링 휠 매출 1위 기업...“중동 위기 지원”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은 지난달 31일 전주세관과 익산지원센터를 방문해 수출입통관 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인 DH오토리드를 찾아 생산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강 세관장은 전주세관에서 기업의 편의제고와 수출활성화를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 받았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관세행정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전북 완주군 소재 DH오토리드를 방문, 고유가의 어려움을 속해 강태일 광주본부세관장에 대해 감사사를 표했다.

DH오토리드는 자동차 스티어링 휠(STEERING WHEEL) 전문 제조기업으로 피지컬 AI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제품을 대량생산하고 있다. 특히 31종의 특허 출원 기술과 모든 공정의 일괄생산 시스템을 통해 연 400만대의 자동차 스티어링 휠을 제조해 국내시장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강 세관장은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신속한 통관과 관세환급 등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동원해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 자동차기업 시험·인증·평가 지원

교통안전공단 최대 3520만원 규모...11월까지 신청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일 지속가능한 상생경영 실현을 위해 광주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시험·인증·평가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자동차 및 부품 관련 본사(지사), 연구소, 공장 등(사업자등록증 기준)이 광주에 소재한 기업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연속 접수(예산 소진 시 마감) 방식으로 진행되며, 선정된 기업은 시험·인증·평가 비용의 최대 80%(3520만원)를 지원 받는다.

공단 부설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은 2022년부터 광주시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16개 기업을 대상으로 155개 시험 항목, 총 8억 2000만원 규모의 시험·인증·평가 비용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수혜 기업의 연구개발 부담을 낮추는 한편, 신규 제작자 등록, 신기술 개발 및 특허 출원 등 사업의 다각화를 촉진했다.

그 결과 최근 4년간(2022~2025년) 총

117억여원의 매출 증대를 끌어내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동차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초소형 전기자동차, 특수 다목적 소방 펌프차 등 업체별 제품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참여 기업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를 기반으로 광주지역 기업의 PBV(목적 기반 차량) 시장 진입을 견인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올해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방문 컨설팅을 운영,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과 지원 수요를 파악해 참여 기업의 편의성과 지원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보유한 자동차 인증·시험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의 자생력 강화와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민간 협력·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영민 기자 looks@gwangnam.co.kr

전남도, 대파·양파 가격 급락에 수급안정 대책

대파 67%·양파 50% 하락...산지폐기·시장격리 병행

겨울대파와 저장양파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남도가 산지폐기와 시장격리 등 긴급 수급안정 대책을 가동했다. 국제 경제 불안과 소비 위축이 겹치며 가격 약세가 장기간 지속될 조짐을 보이자, 선제적 물량 조절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판단이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겨울대파 가격은 kg당 686원으로 평년 대비 67% 하락했고, 양파는 818원으로 50% 떨어졌다. 산지 출하가격이 생산비 수준까지 근접하면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2026년산 겨울대파에 대해 산지폐기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기간은 오는 8월까지이며, 총 160ha 규모로 진도 130ha, 신안 30ha가 대상이다. 사업비는 총 27억원이 투입되며, 도와 시군, 농협, 농가가 분담한다.

지원 단가는 ha당 1696만원으로 정부 시장격리 기준 단가의 80% 수준이다. 도내 주수를 두고 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산지폐기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공급 과잉 물량을 사전에 차단해 가격 하락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파 역시 시장격리 조치에 들어간다. 전남도는 2025년산 농협 저장양파 97t을 대상으로 6월 25일까지 시장격리를 추진한다. 지역별로는 해남 336t, 신안 301t, 무안 192t, 장성 150t이다.

총사업비는 7억원 규모로 국비와 지방비, 농협, 자부담이 함께 투입된다. 지원 단가는 kg당 725원으로 생산비 425원만 수매·저장·하역비 등 제비용 300원을 반영했다. 체소가격안정제 대상 물량 중 농협 저장분을 중심으로 격리해 시장 공급을 조절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이번 조치 이전부터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응해 왔다. 겨울대파와 양파를 대상으로 각각 수차례 실무회의를 열어 가격 동향과 재배면적, 출하 시기 등을 점검했고, 지난 3월 초에는 정부에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 지원을 공식 건의했다.

정부에는 대파의 경우 체소가격안정제 사업을 통한 산지폐기와 가격차 보전 확대를, 양파는 정부 비축 확대와 농협 저장 물량 폐기, 수입 양파 관리 강화, 소비 촉진 대책 등을 요청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생산 구조 개선도 병행한다. 전남도는 이달 초 고흥과 진도 2개 소를 노지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선정해 총 190억원을 투입, 양파와 대파 재배에 자동 관수·관비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과잉 생산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주산지 시군과 협의해 재배 방식 개선과 품종 전환 등 적정 생산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신보, 찾아가는 보증 서비스 ‘온(溫)-케어’

전남신보보증재단은 금융버스 ‘가드림’사업을 확대해 재단 방문 및 비대면 보증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溫)-케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온-케어는 “따뜻하게 돌본다”는 의미로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금융버스 가드림이 직접 방문해 보증상담, 간단한 금융교육, 필요 시 전문가 컨설팅 연계 등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근 금융권 전반에 걸쳐 비대면·디지털 중심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한편으로는 취약계층의 소외 문제가 제기됐다. 전남신보는 2024년부터 찾아가는 현장상담 서비스인 금융버스 ‘가드림’을 운영하며 전통시장, 도서지역 등 도내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왔다.

온-케어 서비스 또한 포용금융 실현의 일환으로 대상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찾아가 현장에서 고객이 필요한 부분을 직접 챙긴다는 점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지원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재용 기자